

익산시 복지서비스가 '한자리에'

내달 2일 중앙체육공원에서 '제3회 익산시 복지박람회' 개최... 총 42개 체험 홍보 부스 운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시립예술단 공연·복지 유공자 표창·11개 팀 문화 공연 등 다채

익산시가 복지서비스 정보를 한자리에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시는 오는 11월 2일 중앙체육공원에서 '익산, 복지로 이어지는 행복한 만남'을 주제로 '제3회 익산시 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다. 공공과 민간의 사회보장 기관·단체·시설 등이 참여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날 행사는 시립예술단의 개막 공연으로 시작해 복지 유공자 16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된다.

이어 박람회 현장에는 42개의 체

험·홍보 부스가 설치돼 이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통합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복지 활동도 소개한다.

아울러 11개 팀의 문화 공연, 익산시 관광 마스코트 '마룡'과 함께하는 무료 즉석 사진,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는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와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민과 소통하며 어우러지는 복지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계획과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가 풍성한 복지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박람회 현장에 찾아오셔서 복지 정보를 쉽고 즐겁게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사회보장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2005년 운영을 시작해 현재 10기를 맞았다. 세부적으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전문위원회를 통해 150여 명의 위원들이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개 읍면동에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 위원 480여 명이 각 읍면동의 복지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통합관제센터, CCTV AI 시스템 시연

유관기관 대상 진행... 각종 사건 범죄 신속한 해결능력 향상 확보 지능형 선별 관제·CCTV 저장 영상 고속검색·군산시 안심귀가 앱

군산시 통합관제센터는 29일 각종 사건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구축한 CCTV AI 시스템 시연회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군산시 통합관제센터의 CCTV AI 시스템인 '지능형 선별 관제', 'CCTV 저장 영상 고속검색', '군산시 안심귀가 앱' 시연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는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AI 지능형 선별 관제를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 사람이나 차량 등을 식별하고 위험이나 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움직임을 감지하여 관제 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실시간 영상감시의 관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인적이 드물고 차량 이동이 없는 곳을 중점적으로 선별해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관제요원의 CCTV 관제 수량을 줄였다. 특히 싸움, 쓰러짐, 침입,

이상 음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알림 기능까지 탑재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이어 소개한 'CCTV 저장 영상 고속 검색 시스템'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대상과 차량을 빠르게 검색 추출할 수 있으며, 높은 정확성 및 육안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능이 개선된 군산시 안심귀가 앱에 관련된 시연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앱의 가입 방법 및 사용법, 실시간 통합관제센터 대처 능력 등을 살펴봄, 시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군산시 백운초 안전건설국장은 "AI 기반 CCTV 영상 시스템 구축으로 육안 관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시스템을 이용해 빠른 사건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추가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정 위한 설명회 개최

군산시·군산상공활성화재단, 골목상권 상생발전 '박차'

군산시와 군산상공활성화재단은 29일 군산시 상권소통협의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관내 상인회와 상가변영회, 군산시 소상공인협회 등 상인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목적과 필요성,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주)이에스지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혜택과 타 지자체 지정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주)이에스지경영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골목형상점가 업무 위탁 기관을 맡고 있다.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의 경우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있으며, 상인조직이 있는 상점가라면 시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업 기반 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산상공활성화재단은 빠른 시일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가변영회와 협의 중이다. 또한 2025년에도 상인회 조직을 지원하여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상인회에 감사드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상공활성화재단(☎063-443-8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 대표 치유 관광 '다이로운 익산여행' 성료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96.8% 만족·지인 소개 방문 51.9%

익산 대표 치유 관광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익산시는 올해 다이로운 익산여행에 637명이 참여했으며, 전체 참가 인원 중 약 79%에 해당하는 500여 명이 다른 지역에서 익산을 찾은 방문객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지난 4~6월 상반기에 이어 9~10월에 진행된 하반기 여행까지 신

청자가 물리며 예약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인기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96.8%의 높은 만족도는 익산여행에 대한 입소문으로 이어졌다. 올해 참가자 중 51.9%인 330여 명이 지인의 소개로 익산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4월에는 지난해 참가한 관광객 추천해 경기도 오산 미군 부대의 미국인 50여 명이 방문하기도 했다.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걸쳐 있는 4대 종교 성지에서 문화 체험을 한다. 원불교총부에서 명상과 미륵사지·심곡사에서 다도 체험을 하고, 두동교회에서 개신교의 역사와 내바위성당에서 순례길을 돌아보며 삶의 시간을 보낸다.

또한 관광지인 아가페정원, 용안생태습지 등도 일정에 포함돼 알차게 익산을 즐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이로운 익산여행을 더욱 발전시켜 고품질의 관광 상품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군산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되는 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825필지 토지가 대상이며,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서 조회할 수 있다.

민약 이번 결정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는 토지 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3일에 최종 결정 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 063-454-39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옹포 송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완료

익산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옹포 송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기존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진행됐다.

시는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교차로 내 진입로와 출구의 구조를 개선했다. 아울러 신호와 표지판 정비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조명등 시설을 설치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